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예배합니다/우린 주를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회개/믿음으로 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다같이
대표기도		최 조나단
*성경봉독	요 12:24-25	이나현
말씀	왜 제자인가?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내가 주인삼은 /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태동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응답찬양

내가 주인삼은 /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내가 주인삼은 모든것 내려놓고
내 주되신 주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해 주사랑 내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왜 제자인가? (요 12:24-25)

24-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오늘부터 우리는 약 한달동안 제자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제자는 누구이고, 제자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 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제자'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단순한 학생의 의미를 뛰어 넘습니다. 학생은 스승에게서 지식을 배운다면, 제자는 그의 삶을 배우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꽤나 무게감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개인적인 구주로 믿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신자(기독교인, Christian)'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자의 길을 어느 정도 걷다 보면, '신자로 살 것이냐, 제자로 살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신자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순종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예수님이 전 부인 사람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예수님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는 신자이지만, 모든 신자가 제자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제자로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현대인들은 은혜로 얻는 신자의 자리는 사모하나 어려운 제자의 길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자는 많은데 제자는 양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Dallas Willard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도 크리스천(신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현대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신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순종을 면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꼬집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은 우리는 왜 반드시 제자의 길을 가야 할까요?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이유는, 우리가 따르려는 예수님 자신이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덕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분의 순종의 삶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은 곧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 겔사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그 분이 자신의 원과 뜻을 버리고 순종을 택하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제자의 자리임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확하게 당신께서 보이신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둘째, 부르신 자의 가치를 알면 제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이 오히려 가장 친근하고 인격적인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 잊곤 합니다. 만약, 부르신 자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안다면 그 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가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청혼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 자는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름받은 나의 가치를 알면 제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가치는 곧 예수님의 가치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속(값을 치름), 혼인, 내주(indwelling) 등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분은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요14:12).

하나님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과 동역해서 주의 일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인간의 순종만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분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산책

청년 여러분, 제자의 삶은 비록 좁은 문으로 가는 힘든 길이지만, 그 길에는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수준의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은 고되지만 짜릿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이 신앙 안에서 해결되면 놀라운 희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 의사, 재력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본 자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가짜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자의 길을 포기한 신자는 자신도, 주변도, 세상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솔직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묵상 질문

1. 나는 신자에 가깝습니까? 제자에 가깝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신자로서 세상에서 마음껏 잘 누리며 살고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그 동안 우리의 마음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은 부분을 통해 나누어 보세요.
3. 나는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ECO 텍사스 노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기간: 5/28-9/24

팀원 모집

라이트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전하영)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미디어팀 - 주보 편집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안혜성)

Just Show Up 가을학기 모임

9/19(화)부터, 매주 화 저녁 8시 (중)
인도: 정동현 교수 (어스틴 신대원 신약학 교수)
본문: 마가복음 (하루 4장)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김상범 목사님, 조학영 자매에게 연락바랍니다.

일대일 인도자반 모집

9/26(화)~11/28(화), 8주, 저녁 7시경, 교회 (인퍼슨)
인도: 김상범 목사
대상: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연락바랍니다

제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 9월 24일(주일) 2부 예배 후
- 장로: 신임 - 맹주일, 이성민, 정훈민,
재임 - 김상보, 한현택
- 안수집사: 신임 - 박영진, 백기숙, 서영란, 안형태, 엄경미, 임병숙, 최승원
재임 - 김광섭, 김성우, 김송자, 김혜은, 손성태, 이찬재, Bruce Kim
- 권사: 신임 - 강귀옥, 박지희, 이정혜, 이효진
재임 - 신미진, 정미숙, 최란조, 홍강순

2023 제 3기 중보기도세미나 및 중보기도학교

일시: 9/23~10/7 (토요일, 3주과정), 오후 2시 (2층 청년부 예배실)
홈페이지 및 로비에서 등록

2023년 AKPC 장학생 선발

대상: 일반대학/대학원생 또는 신학대학/대학원생
접수 마감/10월 22일(주일)
접수 및 문의: 교회 홈페이지(akpc.org)/장학위원회(akpc.scholarship@gmail.com)
지정현금으로 장학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Youth 교사 모집

Youth 사역을 사랑과 열정으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지현 집사 (512-762-0002)

영유아부 교사 모집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유아시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 자라나도록
사랑으로 영유아를 케어할 수 있는 청년 선생님을 구합니다.

환송

이영희, 구본명



청년부 신앙 AR



예배팀 신앙 AR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